도내 해양수산 기업 성장, 전북자치도의 발전

바이오진흥원,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바이오진흥원은 기업들의 입장에 귀 기울여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만의 세부적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기업 대표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이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한 지 3년 차가 되었다.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창업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도민과 국내외 관로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해양수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14일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작년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에서는 창업 4개사, 신규고용 151명(78개 업체), 매출성장률 10.2% 등의 성과를 내며 기존 사업 추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로써 도내 기업들의 인력난 및 도민들의 구직난을 해소, 해외 수출 성과 등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작년 성과에 힘입어 목표를 상향 조정 하였으며,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창업아카데미 사후지원, 스케일업 지원 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최근 매출 저하로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올해는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꼭 참여하여 반드시 반등을 하고 싶다."며 "이러한 지원사업 덕분에 우리 해양수산 기업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의 사업지원을 통해 도내 해양수산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한 도내 해양수산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병권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수산업은 잠재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우리 도에서 수산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정부 "설 이후 과일·채소값 강세… 300억 투입 할인지원 지속"

김병환 기재차관 주재 비상경제·물가관계 차관회의

정부가 설 연휴 이후로도 가격 강세를 지속 중인 일부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300억원 투입해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하고, 할당관세 물량 도입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지난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했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2~3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고,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파 3000t, 수입과일 30만t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t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된 주요 과제들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 중이다.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기존 중국 1개국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으로 확대했다. 인구소멸지역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넘는 3291명으로 늘렸다. /뉴시스

경진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상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원사업 정보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상시 운영중에 있다.

2024년 1월 2일에 개시한 이 시스템은 도, 중앙부처,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그리고 14개 시·군의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도내 기업의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융자지원, 기술·특허, 세무·회계 등 11개 분야에 걸친 전문가가 컨설팅을 포함하여 실시간 전화상담, 비대면 화상상담,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신청분야 및 내용에 맞는 전문가가 매칭되어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며,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이 시스템은 기업 유치와 도민경제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민선 8기 도정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기 기자

전기안전공사 국무총리 단체표창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기관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경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소 안전 점검 및 관리자 교육, 민방위 장비 및 물자 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공사는 을지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내 비상 대비 업무 현안 토의를 추진하며 국가 비상 대비 태세 강화에 기여했다.

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면서 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은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방독면 착용 훈련, 심폐소생술훈련 등을 통해 생활 안전 민방위 교육에 힘쓰고 있다.

박지현 사장은 "앞으로도 국가비상사태 또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생활 안전 우수기관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미세먼지 감축 상호협력 강화

전북환경청, 자발적 협약 체결 9개 사업장과 간담회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15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감축 자발적협약' 체결 9개 사업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 자발적협약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민간·공공사업장과 환경부가 체결한 협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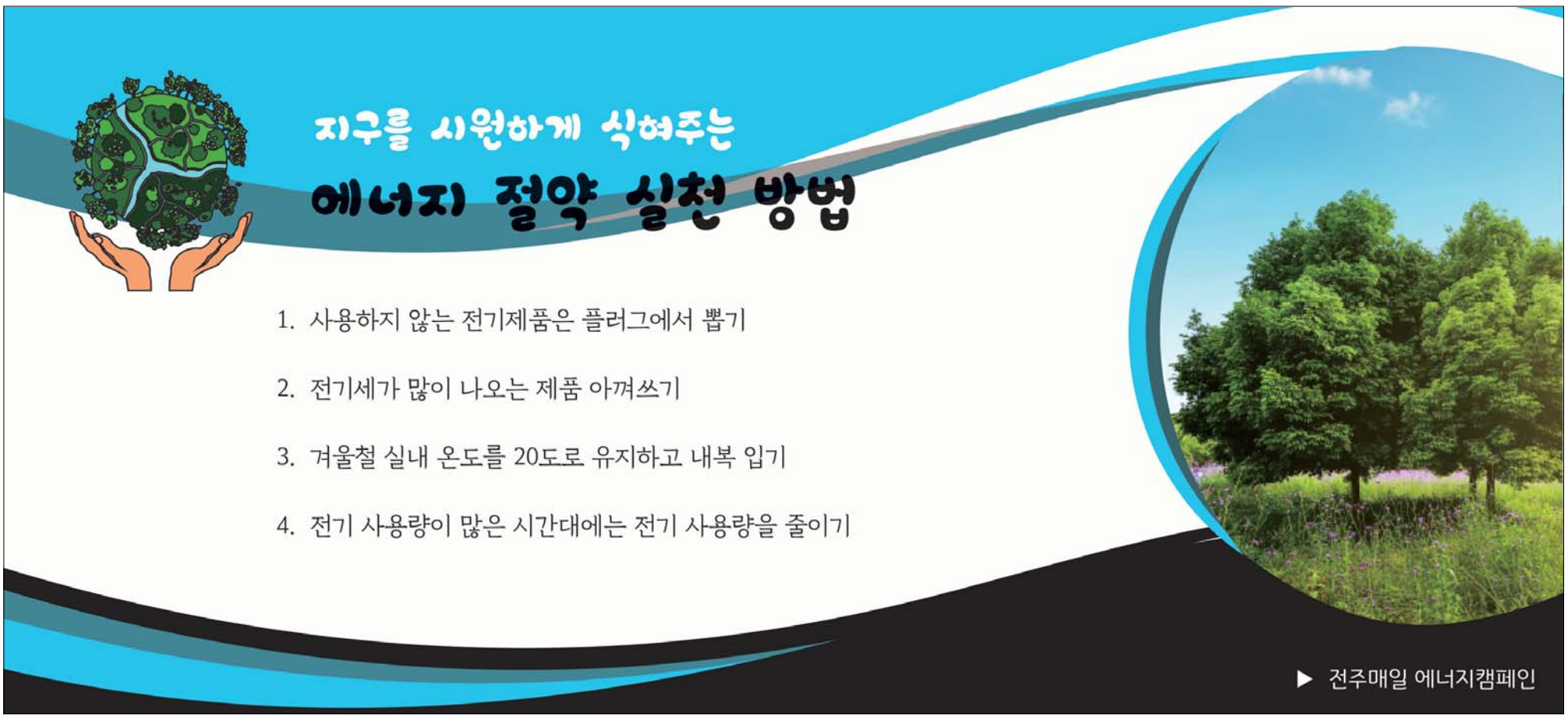
이번 간담회는 각 사업장의 협약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독려하는 자리로, 특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동노력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이 목적이다.

자발적협약에 참여한 9개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계획을 발표했고, 또한 제4차 계절관리제 우수사업장(한화에너지군산공장, 전주페이퍼)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약 사업장에서는 연료개선, 탈질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투자와 방지시설 최적운영, 계획정비 실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및 살수차 운영 등을 이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배출량 모니터링 및 환경청 간부급 공무원의 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전북권역 내 협약사업장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제3차 계절관리제 대비 질소산화물 12.2톤(1.9%), 황산화물 84.2톤(18.1%), 먼지 3.3톤(20.9%)를 감축하여 총 99.8톤(8.8%)을 저감했다.

송호석 청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동참해주신 협약사업장에 감사드린다"며,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전북권 대기질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